

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 (3)

이번 주는 「의안집」(*Instrumentum Laboris*)의 제2부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 “사명에서 공동 책임”과 세 번째 주제 “참여, 책무와 권위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.

“제2부 2. 사명에서 공동 책임”을 위한 작업 목록

- 2.1 어떻게 사명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?
- 2.2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‘온전히 직무적인’ 선교적 교회이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?
- 2.3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떻게 여성들이 세례성사로 받은 품위를 더 많이 인정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?
- 2.4 수품 직무는 선교적 전망에서 어떻게 세례성사로 인한 직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?
- 2.5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 안에서 주교 직무를 어떻게 쇠신하고 증진할까?

여기서 다뤄진 구체적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◎ 공동책임성, 이를 위한 전례 생활의 쇠신, 고통받는 이웃과의 연대, 사회교리의 구체적 실천 (제2부 2.1)
- ◎ 세례받은 모든 이가 받는 ‘보편사제직’과 성품성사를 통해 받는 ‘직무사제직’의 상호 호혜적 관계, 시대의 징표에 따른 새로운 직무의 필요성 (제2부 2.2)
- ◎ 여성의 존엄성과 역할, 여성의 참여가 결정 과정에서 실현되는 방안, 여성 부제직 문제 (제2부 2.3)
- ◎ 주교와 사제의 관계, 축성생활회에 속한 사제들, 종신 부제직, 결혼한 남성에게 특정지역에서 성품을 허용하는 문제,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 평신도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자 역할을 부여하는 문제 (제2부 2.4)
- ◎ 하느님 백성의 자문과 협력과 참여, 신앙감각과 교도직무의 관계 (제2부 2.5)

“제2부 3. 참여, 책무와 권위”를 위한 작업 목록

- 3.1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에서 권위의 봉사와 책임의 수행을 어떻게 쇠신할까?
- 3.2 성령이 주인공이심을 존중하면서, 식별 수행과 결정 과정이 어떻게 참으로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을까?
- 3.3 더욱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구조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?
- 3.4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노달리타스와 단체성(collegialitas)은 어떤 형태를 취할까?
- 3.5 온전히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주교직의 단체성의 표현이 되도록 어떻게 시노드 제도를 강화할까?

여기서 다뤄진 구체적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◎ 권위 행사 방식에 대한 성찰, 그 올바른 행사를 위한 방법과 이를 위한 양성 (제2부 1.1)
- ◎ 교계제도 차원과 시노달리타스 차원의 조화로운 통합, 시노달리타스는 책임자인 ‘목자’ (제2부 1.2)
- ◎ 기존의 절차와 제도 및 구조의 개선, 새로운 제도적 장치, 제도 운영의 핵심 원리인 ‘투명성’ (제2부 1.3)
- ◎ 지역교회 (주교)회의들의 역할과 권한 (제2부 1.4)
- ◎ 시노드 제도의 발전, 교황과 주교직, 주교단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기본교리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느님 백성이 ‘참된 의미에서’ 참여하는 방법 (제2부 1.5) ☸